

HEADLINE NEWS

여성친화적 거리 조성사업 추진 (영국)

영국은 런던市, 브리스틀市, 맨체스터市와 같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여성친화적 거리’ 조성 사업을 추진중이다. 존 프레스콧 부총리가 주도해 2004년 11월부터 시작된, 이 3개년 사업에 여성 건축가와 여성 도시계획가로 구성된, 비영리단체인 WDS(Women’s Design Service)와 위 의 세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대도시 여성 수백 명을 인터뷰한 결과 대부분의 여성들이 종종 도심거리를 불안하게 느낀다고 응답했다. 이 조사결과에 기초해서 여성이 두려움 없이 활동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이다.

이 사업은 가로등을 더 밝게 하고, 밝은 이미지 조성을 위해 골목과 지하도를 다시 페인트칠하는 등의 실천방안을 마련했다. 이 외에도 공중화장실 증설, 밤 10시 이후 택시 이용 시 여성에게 우선권 제공, 공중화장실에 화장공간 마련, 열차와 버스에 여성공간 할당 등의 방안을 고려 중이다. 이 사업으로 여성의 안전 확보와 범죄예방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www.wds.org.uk/www/projects_msp.htm)

HIGHLIGHTS

도시관리

- ① 대중교통 지향적인 고밀개발 평가보고서 출간 (미국)
- ② 도심 주거용 고층빌딩 건설 붐 (미국)

도시환경

- ③ 에너지비용 절감에 성공한 도시 (미국 코네티컷주 뉴헤이븐市)
- ④ 대규모 공원 조성 계획 (캘리포니아)

도시교통

- ⑤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자동차 주행속도 하향 조정 (네덜란드)
- ⑥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SUV)과 보행자 사망률 관계 규명 (아일랜드 더블린)
- ⑦ 도심부내 버스 교통량 증가에 따른 대책 마련 (애틀랜타)
- ⑧ 인공위성 기반 도로혼잡세 부과방안의 타당성 연구 (아일랜드 더블린)
- ⑨ 테러방지를 위해 지하철역에 최첨단 보안장치 도입 (뉴욕)
- ⑩ 휴대폰을 이용한 교통상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볼티모어)
- ⑪ 일반 차량을 교통정보 수집원으로 하는 첨단 차량-도로 일체화 프로젝트 추진 (미국)
- ⑫ 버스승객에 무선인터넷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범사업 전개 (워싱턴州)
- ⑬ 스쿨존 운영관리 정비계획 발표 (호주 빅토리아州)

① 대중교통 지향적인 고밀개발 평가보고서 출간 (미국)

미국 비영리 연구단체인 링컨 토지정책연구소(Lincoln Institute of Land Policy)는 텍사스, 캘리포니아, 오리곤, 메릴랜드, 매사추세츠주 등에서 추진된 대중교통 지향적인 고밀개발 사례를 분석해 보고서로 출간했다. 이 보고서는 특히 대중교통 지향적인 고밀 개발의 어려움과 이러한 개발이 교통체증, 인프라, 세금, 저소득층 주거문제 등 근린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lincolninst.edu/pubs/pub-detail.asp?id=1053)

② 도심 주거용 고층빌딩 건설 붐 (미국)

미국 전역에서 도심 주거용 고층빌딩 건설이 인기를 얻고 있다. 워싱턴주 시애틀, 애리조나 템피(Tempe), 텍사스 오스틴, 보스턴 등에서는 도심의 조망권과 스카이라인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주거밀도를 높이기 위해 타워형 고층콘도 개발을 진행 중이다. 텍사스 오스틴시는 현재 도심의 층고제한이 10층임에도 불구하고 층고제한 변경을 통해 36층짜리 콘도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보스턴시는 도심에 건설하는 빌딩에 50% 이상 주거기능이 있을 경우 더 높게 지을 수 있도록 ‘층고 보너스(Height Bonus)’ 제도를 도입했다. 도심의 고밀도 주거 기능 확보는 도심 공동화를 막을 뿐 아니라 교외지역으로 유입될 인구를 흡수함으로써 도시 확산 감소효과도 클 것으로 보고 있다.
(www.statesman.com/search/content/business/stories/10/9downtown.html)

③ 에너지비용 절감에 성공한 도시 (미국 코네티컷주 뉴헤이븐市)

미국 코네티컷주 뉴헤이븐(New Haven) 市의 에너지비용 절감 프로그램이 좋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1994년부터 시작된 이 프로그램을 통해 지금까지 약 2470만 달러 이상의 에너지비용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비용 절감의 핵심방법은 의외로 간



단하고 상식적이다. 예를 들어, 2004년 市의 공립학교들이 에어컨과 히터 사용을 자제해 110만 달러를 절감했으며, 11,300개의 가로등 조명을 에너지 절약형으로 바꾼 후 50만 달러를 절감했다. 그리고 신축 공공건물은 대부분 에너지 절약 건물시스템을 적용하여 에너지비용 절감을 도모하고 있다.

(www.csmonitor.com/2005/1018/p01s04-ussc.html)

④ 대규모 공원 조성 계획 (캘리포니아)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에 대규모 공원이 조성된다. The Great Park로 불릴 이 공원은 캘리포니아주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이다. 공원 내에 산책로, 습지, 야생동물 통로, 스포츠시설, 문화공간 등을 조성해 2008년에 개장할 예정이다. 이 공원은 총면적이 약 5km²에 이르며 공원 경

계를 따라 약 10km²의 상업용지와 3,400채의 주택이 추가로 조성된다.

(www.calendarlive.com/printedition/calendar/cl-et-ocpark17oct17,0,7664570.story?track=tohtml)

5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자동차 주행속도 하향 조정 (네덜란드)

네덜란드 정부는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고속도로 제한속도를 하향 조정한다. 2005년 11월부터 시행되는 속도제한은 우선 이용률이 높은 4개 고속도로에 한하며, 속도는 시속 100km에서 80km로 낮아진다. 새 속도규정을 잘 지키면 이산화탄소, 이산화질소, 미세먼지 등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물질을 현저히 줄일 수 있다고 네덜란드 정부는 밝혔다. 이 조치는 네덜란드의 대기오염 저감 목적뿐 아니라 대기오염 개선을 위해 유럽 국가들이 마련한 새 규정을 따르고자 마련됐다.

(www.sharedspaces.nl/pagina.html?id=9571#)

6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SUV)과 보행자 사망률 관계 규명 (아일랜드 더블린)

아일랜드 더블린市 Trinity College의 과학자들은 의학전문지 Lancet 최신호에 발표한 연구보고서에서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SUV)이 교통사고시 보행자에게 치명적이라고 밝혔다. SUV가 사람을 칠 경우 보행자 사망률이 일반차량에 비해 2~4배가 높고, 노인과 어린이 같은 보행약자에게 특히 치명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SUV로 인한 보행자 사망률이 높은 이유는 정면이 넓고 높아 교통사고시 보행자 머리 부위에 충격을 주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윤적석이 높기 때문에 키가 작은 어린이를 못 볼 확률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edition.cnn.com/2005/WORLD/europe/10/07/suv.pedestrians.reut/index.html)

7 도심부내 버스 교통량 증가에 따른 대책 마련 (애틀랜타)

미국 애틀랜타 대도시권 도시계획 기구인 ARC(Atlanta Regional Commission)는 도심부내 버스 교통량 증가에 따른 버스운행의 문제점과 보행환경의 악화 문제 해결에 관한 연구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6개월간 수행된 이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보행 활동이 왕성한 보행중심축 도로구간의 보행환경 보존을 위해 이 구간 버스운행을 대폭 축소하고 기존의 일방통행 도로에 버스 역류차선을 도입해 버스운행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제안했다. 구체적인 실행방안 수립을 위해 교통관계자 및 시민대표로 구성된 태스크포스팀 구성도 제안했다.

(Atlanta Regional Commission's Regional Planning Newsbriefs, 2005. 9)

8 인공위성 기반 도로혼잡세 부과방안의 타당성 연구 (아일랜드 더블린)

아일랜드 더블린에서는 더블린 교통부와 유럽 우주국(European Space Agency)의 재정지원으로 인공위성을 활용한 도로혼잡세 부과방안 연구에 착수한다. ARMAS(Active Road Management Assisted by Satellite)라고 명명한 이 연구는 일반 차량에 인공위성으로 차량위치 추적이 가능한 장치를 부착해 차량의 실제 통행거리, 통행시간대, 도로구간을 파악한 후 혼잡세를 부과하는 방안의 실현가능성을 검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방안은 교통상황에 따라 혼잡세를 달리 부과하는 가변 혼잡세 징수를 전제로 하고 있다. 차량 운전자는 차량위치 추적장치를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이 제도가 실현되면 앞으로 통행료 징수대가 필요 없을 것이라고 관계 당국자는 말했다.

(www.siliconrepublic.com/news/news.nv?storyid=single5417)

9 테러방지를 위해 지하철역에 최첨단 보안장치 도입 (뉴욕)

미국 뉴욕시 대중교통 운영기관인 MTA(Metropolitan Transportation Authority)는 테러방지를 위해 지하철 전역에 최첨단 보안장치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감시카메라와 각종 센서 설치를 골자로 하는 이 계획은 폭발물 탐지, 얼굴 인식, 승객 표정 긴장도 감지, 특정 승객 추적 등의 기능을 갖춘 첨단 센서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현재 MTA는 각종 보안장치 설치를 위해 2억 1200만 달러에 이르는 자금을 투입하고 있으며, 이러한 첨단장치 도입을 위해 향후 좀더 많은 투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www.nynewsday.com/news/local/manhattan/nyc-secu0828,0,4833705.story?coll=nyc-moreny-headlines)

휴대폰을 이용한 교통상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볼티모어)

미국 볼티모어시는 미국 최초로 휴대폰을 활용한 교통상황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실제 활용할 계획이다. Multi-Modal Traveler Information System이라고 불리는 이 프로젝트는 그 동안 실험적으로만 해 오던 휴대폰 활용 통행시간 추정 기법을 실제로 적용해서 도로상에 추가 시설물 설치 없이 광범위한 지역의 교통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총 560만 달러가 소요되는 이번 프로젝트에 민간회사가 66%를 투자하고 연방정부가 나머지를 투자해 사실상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이 없다. 민간회사는 투자조건으로 향후 생성되는 교통정보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권한을 갖게 된다. 2004년 말에 일부 도로축에서 이 시스템의 실현가능성이 이미 검증되었으며, 현재 일부 자료는 교통정보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www.floridaitis.com/Newsletters/2005/September/09-2005.htm#Maryland)

④ 일반 차량을 교통정보 수집원으로 하는 첨단 차량-도로 일체화 프로젝트 추진 (미국)

미국 연방 교통부가 주축이 되어 최신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차량-도로 일체화(VII: Vehicle Infrastructure Integration)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프로젝트는 과거 지역간 고속도로를 건설했던 사업에 버금가는 대단위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일반 차량을 교통정보 수집원으로 활용해 실시간 교통정보를 얻고 이를 교통 운영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하는 데 핵심이 있다. 州교통부와 차량 제조업체의 공조로 진행되는 이 프로젝트에는 정보기술, 각종 센서, 전자지도, 데이터 처리기술 등 각종 첨단기술이 동원될 예정이다. 관계당국은 2008년까지 이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실현을 위한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며, 2010년경에는 초보적인 수준이기는 하나 실제로 구현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www.geoplance.com/uploads/FeatureArticle/0509trn.asp)

④ 버스승객에 무선인터넷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범사업 전개 (워싱턴州)

미국 워싱턴州 킹 카운티 당국은 버스운행 중 승객에게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향후 5개월간 진행될 이 시범사업은 2개 버스노선에 운행 중인 29대 버스에 우선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평가를 통해 시행범위 확대 여부와 시행방향을 결정하는 근거자료로 사용할 예정이다. 카운티 당국은 이 시범사업 기간 중 무선인터넷 사용상의 기술적인 문제 점검뿐 아니라 승객 반응, 승객수 변화, 비용상 문제점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www.govtech.net/news/news.php?id=96690)

스쿨존 운영관리 정비계획 발표 (호주 빅토리아주)

호주 빅토리아주 당국은 최근 스쿨존(school zone) 운영과 관리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계획을 발표하였다. 최근 공표된 ‘속도제한구역 위치에 대한 지침’에 따른 이 정비계획에 의하면, 교통전문가가 모든 스쿨존을 직접 방문해 평가하게 된다. 평가의 주된 관점은 위치의 적절성뿐 아니라 스쿨존 관련 표지판의 명확성, 스쿨존 운영시간의 적절성 등이며,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빅토리아주는 2003년부터 스쿨존을 운영해 왔는데, 일부 시민들은 불필요한 시간대에 스쿨존이 운영되고 타당한 이유 없이 스쿨존이라는 이유만으로 과속단속을 받는 데 불만을 제기해 왔다.

(www.heraldsun.news.com.au/common/story_page/0,5478,16491440%255E2862,00.html)